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꽃, 심상의 풍경을 담다

전남도립미술관 '영원, 낭만, 꽃' 전시 리뷰

총 5개 주제...인간 전 생애 함께한 '꽃의 도상' 탐색
프랑스 모빌리에 나시오날, 해남 대흥사 소장품 등
시·공간 초월 삶의 다양한 이야기 담은 작품들 선포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꼽히는 꽃. 그 이면 뒤에 감춰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시로 펼쳐졌다.

지난 15일 찾은 전남도립미술관 기획전 '영원, 낭만, 꽃'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간 전 생애를 함께 해왔던 꽃의 다양한 도상을 만나볼 수 있었다.

'꽃 무늬'는 동서양, 시대를 막론하고 널리 사랑을 받아왔다. 집안의 평화와 강녕을 바라는 민속품부터 왕좌 뒤 걸린 화려한 실내 장식품, 삶의 영원을 바라는 불화에 이르기까지 꽃은 언제나 우리 인간과 함께했다.

이번 전시는 모두 5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꽃에 비취본 인간 삶을 나타낸 총 70여점의 작품을 마주할 수 있는 대규모전이다.

진흙 속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연꽃을 모티브로 한 1전시실은 '연화화생, 재생의 영원'을 주제로 한다. 이 공간에서는 대흥사 소장품이자 전남도유형문화재 제179호인 초

의선사의 '관음보살도', '준제보살도'를 만날 수 있다. 대흥사 외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들로, 연꽃 도상을 통해 죽음 이후 삶에 담겨있던 사람들의 영원을 드러낸다.

제2전시실은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언제나 꽃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하는 섹션이다.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꽃의 도상을 공예품과 테이프스트리 등 여러가지 물품을 통해 만나본다. 아기가 신는 태래버선과 꽃신, 복을 불러달라는 귀주머니, 모란도, 화조도 병풍 등 실생활에서 사용된 민속품들이 국립민속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 협조로 전시된다.

프랑스 왕립 공방 중 하나인 사본느리의 꽃 테이프스트리 작품도 함께 걸린다.

옛 장식예술품에서부터 현대회화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달리하며 수용되는 꽃의 이미지를 담아낸 3전시실에서는 프랑스 모빌리에 나시오날 작품들을 눈여겨보면 된다.



다양한 꽃의 도상을 탐색할 수 있는 전남도립미술관 전시 '영원, 낭만, 꽃'이 오는 11월5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5전시실 전경.

/최명진 기자

모빌리에 나시오날은 루이 14세 이후 재건된 가구 및 장식예술박물관으로 13만여점의 컬렉션을 보유 중인 국립기관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루이 14세 시대 궁정화가인 샤를 르 브룅의 원작 '사계' 시리즈 중 '봄'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모네 원작 '수련' 테이프스트리 2점과 르동의 원화 등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작품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4전시실은 미디어 작가 제니퍼 스타인캠프 단채널 영상 한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수

많은 꽃 무더기들이 자유롭게 유포하는 작품 앞에 서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사진,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접근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꽃' 작품은 5전시실에서 관객들을 기다린다.

미국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흑백 사진 '꽃 시리즈'를 포함해 사춘기 딸아이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희승 작가의 장미 연작, 발끝에서 찰박이는 동전의 청각적인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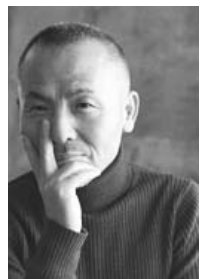
소가 돋보이는 박기원 작가 작품 '대화'까지. 꽃의 이미지가 다채롭다.

전시를 기획한 이연우 학예사는 "예로부터 인간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꽃 이미지를 문화재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다채롭게 탐색할 수 있는 전시"라며 "아름다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 동시대 '꽃' 작품을 다양한 매체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원, 낭만, 꽃' 전시는 오는 11월5일까지 이어진다.

/최명진 기자

인생의 길은 사람 수만큼 있다

가운의 개버스상체



서희구와 포동신구를 가로지르는 황포강을 끼고 상하이가 있다. 이곳은 장강의 흙탕물이 바다로 가는 길목이다. 모든 부가 모이는 신·구 도심지는 육망의 바벨탑을 연상시킨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낚기 위해 분주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낚시꾼이 아닐까 싶다.

'영감의 원천'을 주제로 주 상하이 한국문화원과 제13회 국제 전통예술 초청전 부제: 사해공방비(四海共芳菲)는 천하가 함께 꽃피우다

상하이 예술품박물관에 전시하게 돼 이곳을 방문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며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을 생각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결국 인생은 지나고 보면 다 아쉽고, 그리고, 또한 가슴 한편에 아릿한 무엇인가가 남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나답게 하는 가치를 재발견하곤 한다.

인생의 지혜를 구할 때면 석가세존께서 '인생은 고해(苦海)의 바다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란 말씀을 상기하게 된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예술이든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인식확장을 의미한다.

힘들게 버려 온 작가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공기와 꿈'

"인생의 길은 사람 수만큼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 빛이 찬란할수록 그림자는 크다.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림자를 인정하며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가까이 있었지만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개인사를 듣고 마음을 열어준 동료 작가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상하이에서 화가강윤〉

南道 宗家문화 계승과 발전

한국학호남진흥원, 오늘 ACC서 심포지엄

우리 고장 역사·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남도 종가문화의 계승 발전을 탐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남종가회가 주최하고 전남도가 후원하는 '2023 제7회 전남 종가 심포지엄'이 20일 ACC 국제회의실과 리셉션홀에서 열린다.



오전 11시 ACC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인류문화유산으로서 종가 문화의 의미와 가치' 기조 발표로 시작된다.

같은 시간 리셉션홀에서는 '남도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석학들의 제언'을 주제로 하는 좌담회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남 종가의 우수한 음식문화를 보여줄 종가 음식 전담회로 진행되는 시도 학술대회장 로비에 마련된

/최명진 기자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าวน์โหลด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ONestore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